

Jerusalem

이스라엘-예루살렘(Ⅲ)

자료제공 : 이운익(마태오) 세익여행사 대표

하렛 에즈 사미라

나블루스 시내의 사마리아 사람들만 모여 사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쉬나고계의 중심으로 약 3백 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이 구역의 대표자가 곧 대사제로서 특권과 영예를 갖는다. 쉬나고계에 있는 기원후 2세기경 사마리아 사람들의 토라 두루마리가 유명하다.

므기또 성채

므기또 성채는 이스라엘 항구 도시 하이파에서 35km 떨어진 곳이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확장하여 여러 요새와 위성 도시를 세웠는데 므기또 성채도 그 중 하나이다. 역사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므기또는 신석기 시대(기원전 4000년)부터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다고 한다. 이곳은 이스라엘 광야를 두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싸움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며 솔로몬 왕 시대에 가장 번창하였고 기원전 9세기 북이스라엘 왕 오므르와 그의 아들 아합이 므기또 도시를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므기또 성벽, 솔로몬 시대 성문, 가나안 시대 성문, 신전 터, 물 저장소, 곡식 저장소, 궁전 터 등이 있다.



므기또 성채

세바스티에-사마리아

세바스티에-사마리아는 나블루스에서 12km 위치에 있는 죽은 옛 도시로 완만한 언덕에 계곡으로 둘러싸인 해발 400m 정도의 동산이다. 이 동산의 언덕 동편 아래에 아랍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데 현재 이곳을 세바스티에라고 한다.



사마리아 전경

사마리아는 오므리 왕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조의 수도가 되었으며 사마리아 명칭은 '세멜'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름에서 연유된 것인데 세멜은 오므리 왕에게 그 부지를 팔았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멜은 히브리어로 '소므론', 희랍어로는 '사마리아'라고 표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바스티에' (희랍어), 또는 '아우구스타' (라틴어)라는 명칭은 헤로데 대왕에 의해 개명된 사마리아의 도시명이다. 세바스티에-사마리아는 상당히 일찍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된 곳으로 비잔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주거지가 되었다.

유적으로는 헤로데 왕이 세운 로마 시대 성벽, 건축물, 도시 유적, 세레자요한의 무덤 성전 터 등이 있다(관련성서: 1열왕 16,23-24).

나자렛

나자렛은 지형적으로 사방이 야산으로 둘러싸인 지대가 높은 분지로 된 도시이다. 예수께

서 공생활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사셨던 곳으로 예수 시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도시이다. 나자렛은 기원전 200년대부터 유대인들이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고 헤로데 왕 시절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성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다.

성모 영보 기념 성전

나자렛의 대표적인 기념 성당으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달한 곳으로 마리아의 집터 위에 1960년~1969년에 세워진 기념 성전이다.

성가정 성전(성요셉 성전)

성모 영보 성전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요셉의 작업장이 있었으며, 성가정이 있었던 곳에 세워진 기념 성전이다. 1914년 세워진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이다.

가브리엘 기념 성전

나자렛의 유일한 샘 위에 세워진 희랍 정교회 기념 성전으로 마리아가 가브리엘 대천사를 만났던 곳이 우물 옆이었다고 믿고, 1767년에 세운 성전이다.

가나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 주었고 예수를 믿도록 한 곳이다. 가나 마을은 키르벳 가나와 카프르 칸나가 있는데 어느 곳이 가나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순례자들은 현재 카프르 칸나 마을을 순례하고 있다. 이곳에는 희랍 정교회와 프란치스코 소속 기념 성전이 있다.

요르단 강

눈 덮인 헤르몬 산 아래에서 시작하여 사해로 흘러들어 가는 요르단 강은 특이한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강의 직선거리는 단지 104km 밖에 되지 않지만 꼬불꼬불 돌아 흐르기 때문에 총길이가 256km나 된다. 이 강은 헤르몬 산 네 곳에 지하수가 솟아 요르단 강이 형성되어, 사해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알 우르단(내려오는 강)이라는 뜻을 가진 요르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평균 폭이 30m 되는 요르단 강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성스럽게 여겨졌다. 신약 성서에 의하면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장소이다.

갈릴래아 호수

갈릴래아 호수 주변의 겐네사렛 언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덕으로 유명하다. 남북의 길이 21km, 동서의 폭 14km, 넓이 170km로 하프 모양이며, 겐네사렛 호수라고도 한다. 깊은 곳은 약 50m이고 지중해의 수면

보다 212m 낮다. 일대에는 겨울철에는 비가 약 500mm나 내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하며, 키브츠가 밀집해 있고 인구가 조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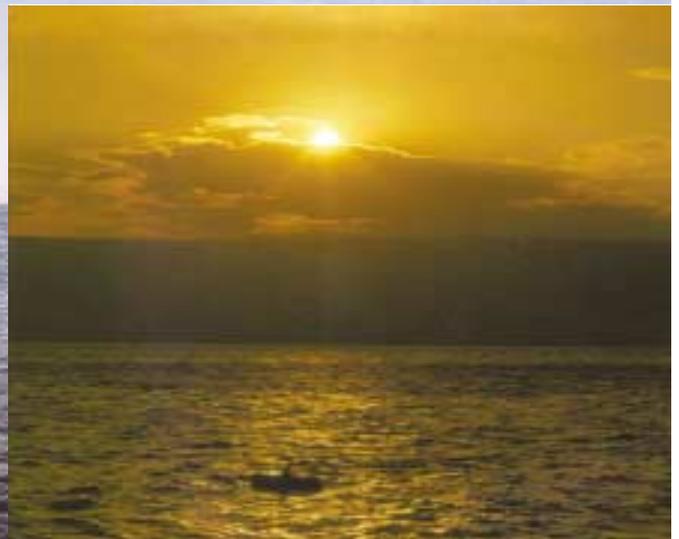
주변에는 성서에 등장하는 지명으로 가파르나움, 진복팔단 산, 티베리아스, 타브가, 게라사 등이 있다. 예수께서는 이 호수를 중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으며,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하셨다. 이 호수에는 약 37종의 어족이 살고 있다. 순례자들이 주로 먹는 베드로 고기가 유명하다. 이곳의 물이 요르단 강 줄기를 따라 흘러가서 이스라엘 전국에 식수는 물론 농업, 공업용수까지 공급한다. 언덕으로 둘러싸인 분지 속의 호수지만 때때로 폭풍이 몰아치기도 한다.

티베리아

갈릴래아 호수 서안에 있는 도시로 기원전 20년경에 헤로데가 세웠다. 당시의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티베리아라는 이름을 붙임에 따라 갈릴래아 호수도 티베리아 호수라고 불리기도 한다.



갈릴래아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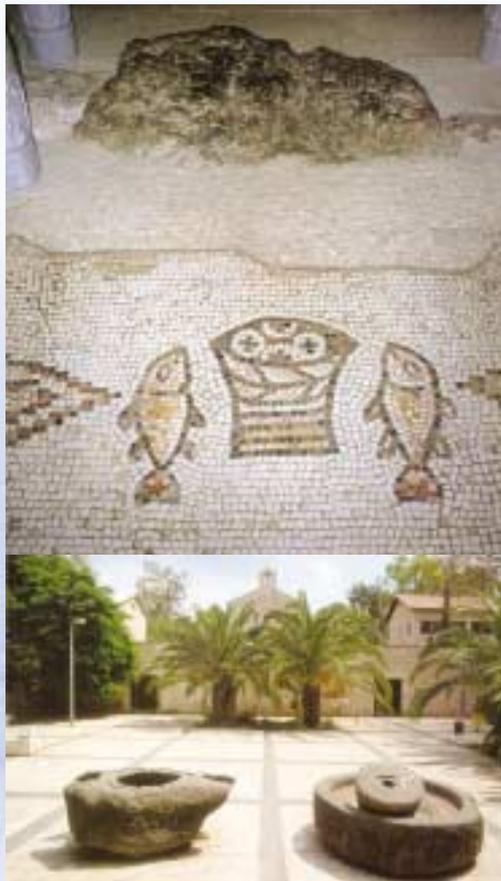


타브가

타브가는 ‘일곱 개의 샘물’이란 의미를 지닌 히랍어 ‘헤프타페곤’, 아랍어 ‘아인타브가’, 히브리어 ‘엔세바’로 갈릴래아 호수의 서북쪽 연안, 가파르나움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지역이다. 옛날에는 일곱 개의 샘물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에는 다섯 개의 흔적만 남아 있다.

빵의 기적 성전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으셨다는 자리에 기념 성전을 세웠다. 1982년 비잔틴 양식으로 독일 베네딕도 수도회 소속이다(관련성서 : 마르 6,30-44; 마태 14,13-21; 루가 9,10-17; 요한 6,1-15).



빵의 기적 성전

베드로 수위권 성전

(부활하신 그리스도 발현 기념 성전)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갈릴래아로 돌아온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갈릴래아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새벽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 보았더니 끌어올릴 수 없는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리스도는 제지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나누어 먹었다.

이 장소에 세운 기념 성전이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라는 명령과 함께 수위권을 받았다고 여기는 곳이다. 1934년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새로 건립하였다(관련성서 : 요한 21,1-14,16).

가파르나움

‘예수의 도시’ 또는 ‘예수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께서 제지들과 함께 거의 20개월 정도 활동하시던 곳이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많은 선행과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으며, 죽었던 아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셨고, 중풍 환자 치유 등 예수께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 많은 기적을 행한 곳이다.

그리고 예수의 첫 제자 시몬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이 간택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수께서 많은 활동과 기적을 베푸셨으나 회개치 않은 도시 중 하나이다(관련성서 : 마르 1,16-20; 요한 1,35-42; 요한 4,46-53; 마르 2,1-12).

진복팔단 기념성전

쉐이크 알리 언덕이라 불리우는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많은 군중에게 특별한 설교, 곧 산상 설교를 하셨다. 여덟 가지 참된 행복 선언을 기리는 뜻에서 1930년에 팔각형으로 기념 성전을 세웠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갈릴래아 호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관련성서 : 마태 5,3-10; 5,1-2).

쿠르시

타브가 맞은 편, 갈릴래아 호수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1970년 공사 때 성전터와 유물을 발견하였다. 현재는 기념 성전은 없고 비잔틴 시대의 성전과 수도원의 유물이 정리되어 있다.

코라진

예수께서 활동하신 곳 중에 더 많은 애정과 기적을 많이 베푸셨음에도 회개치 않은 코라진은 가파르나움에서 북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으로 1814년 고고학자(R. 리처드슨)에 의해 신약 성서의 코라진으로 확인되었다(관련성서 : 마태 3,4-12).

베싸이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아, 필립보의 고향으로 예수께서 소경 한 사람을 치유한 곳이며,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곳이었다고 한다. 예수께서 활동하신 곳 중 회개치 않은 세 도시 중 하나이다. 현재는 아무 흔적도 없다(관련성서 : 루가 9,10-17; 마르 8,22-26; 마태 11,20-24).

필립보의 가이사리아(바니아스)

이곳은 '나흐르 헤르몬'이라 불리는데, 요르단 강의 원천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원천이다.



가파르나움

바니아스 암벽에는 여러 개의 동굴들이 많은데 가나안 시대에는 자연신을 모시는 장소로 성소의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 현재에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헬레니즘 시대(기원전 332~63)에는 이곳이 '파네아스', 로마 시대(기원전 63년~기원후 324년)부터는 '필립보 가이사리아'로 불려 오고 있다.

맑고 깨끗한 물이 넘쳐 흐르는 폭포수는 이곳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더위를 말끔히 씻어 준다.



진복팔단 기념성전

예수께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 있는 곳으로 예수께서 베싸이다에서 소경을 치유한 후 제자들과 함께 필립보 가이사리아로 가셨다고 한다(관련성서 : 마르 8,27; 마태 16,13-20; 루가 9,18-21). 현재 이곳에는 아무런 기념 경당 하나 없다.

가르멜 산

가르멜 산은 하이파 항구의 뒤편에 위치한 곳으로, 땅이 비옥하여 이스라엘에서 가장 매력적인 산이다.

이곳은 유일신과 이교도의 잡신이 대적한 장소로, 엘리야 예언자와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의 예언자가 각각 제단을 쌓고 황소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어느 쪽이든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하느님으로 알자는 것인데 엘리야 예언자의 승리로 끝났다. 엘리야 예언자를 수호성인으로 모시는 가르멜 수도원이 13세기에 세워졌다.

지중해 가이사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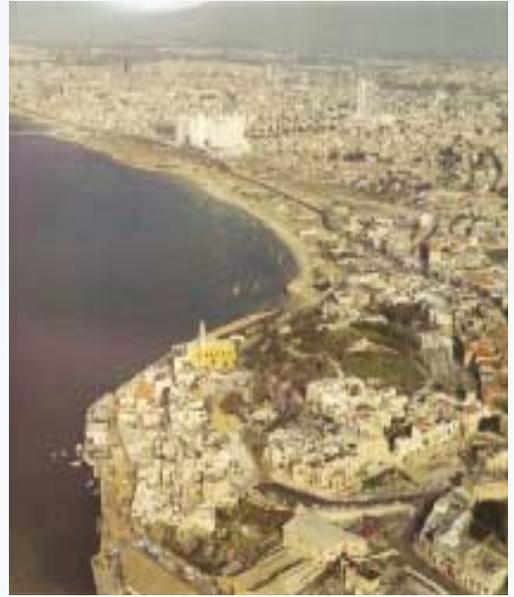
기원전 22년경 헤로데 왕은 사마리아의 북부 지중해변에 부두를 건설하고 큰 도시를 건설하였다. 로마 제국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케사르(그리스어로 가이사르)를 기리는 뜻으로 '가이사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다.

기원후 6년부터 500년간 로마 총독이 주재하여 오랫동안 팔레스티나의 행정 수도였다. 기원후 26~36년에 본시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직하여 예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같은 날 사형을 집행한 장소이다.

이곳은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어 약 2년 동안(58~60년) 이곳에서 갇혀 있었다. 유적은 고대 원형 극장, 십자군 시대 성벽, 시장 터 등이다.

텔아비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인구 40만 명으로 상업 도시이며 항구 도시이다.



텔아비브 전경

야포(요빠)

야포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이다.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창세 6,10.)이 이 항구를 세웠고, 그 이름을 따 야포라 하였다. 기원전 12세기에는 블레셋족의 지배 하에 잠시 있다가 단지파의 후손에게 속하게 되었다(여호 19,40-46).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 레바논에서 벌목한 나무를 야포 항구를 통해 운반했다고 한다(2역대 2,1-16).

야포에는 17세기에 세워진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 성 베드로 수도원이 있으며, 수도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시몬의 집이라는 작은 집이 있다. 🐦